

칼빈주의 바로 알기 ㄱ
하나님의 예지 예정 선택과 인간의 자유 의지 믿음

엡1:1-6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교회를 세워 주셨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신부

이 교회는 유대인 이방인, 남녀노소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 자들의 모임
마16:18,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의미: 마귀가 교회를 파괴하려고 집요하게 공격한다. 성경 말씀 자체 변개(천주교 다양한 역본들),
교리 변개, 심하면 이단들 등장

이를 막기 위해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 목사 겸 교사이다(엡4:11).

목사; 성경에 통달해야 한다.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균일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 잘못된 교리, 이단
교리에 빠진 자를 구원해 내야 한다.

목사의 직무는 심히 중차대한 것이다.

성경의 여러 교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 교리

성경은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친다.

그런데 조금 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선택, 예정이라는 말이 있다. 엡1:4-5.

선택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이루어진다. 구원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었다는 말씀(행13:48)
성경과 교리에 능통하지 못하면 이러 미묘한 몇 구절에 의해 칼빈주의의 무조건적인 선택 구원, 무조건적인
유기 심판 교리 등을 믿게 된다.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에는 미묘한 구절들이 몇 개 있다.

적당한 비유:

구원과 관련된 대다수 구절: 믿으면 구원받는다.

미묘한 몇 구절들: 마치 믿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믿게 해 주어야 믿는 것 같은 구절들
예수님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 백성의 안내자, 성경 교사 자칭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 눈 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는도다(마23:24).

(*) 조그만 모기에는 긴장하고 커다란 낙타는 꿀꺽 삼키는 자들, 종교인들이 많다.

의미: 대다수의 명백한 것들은 간과, 소수의 미묘한 것들을 사용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만든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런 식으로 백성의 안내자라 자칭함, 너희는 눈먼 안내자들이다.

우리는 낙타를 먼저 보고 모기를 보아야 한다.

즉 산을 먼저 보고 그 안의 나무들을 보아야 한다.

즉 성경 전체를 먼저 보고 큰 그림을 그린 뒤 미묘한 것들을 그 그림에 맞추어야 한다.

오늘은 < >,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낙타와 모기를 구별하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 미묘한 구절이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를 보여 주려고 한다. 잘못된 교리 혹은 이단
교리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교육 설교, 이해력 성경 바로 보기

구체적인 예를 들기 위해 나타는 삼키고 모기에 긴장하는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도록 하겠다.

먼저 낙타를 보아야 한다.

칼빈주의자들의 주장: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자유 의지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를 다시
태어나게 해야(구원시켜야) 그 뒤에 비로소 그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구원받도록 창세 전에 예정된 자들이 있고, 이런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창세 전에 예정된 자들이
있다. 기독교 강요 21장 5항

그래서 전자(택자들)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해 100% 구원받고, 후자(비택자들)는 저항할 수 없는
정죄로 인해 100% 지옥 정죄를 받는다.

이 모든 일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이미 다 정해져 있다. 인간은 그 각본대로 지금 살고 있다.

지금까지 6번 강해를 통해서 이런 주장은 성경에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성경은 사람이 자유 의지가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한다(요3:16).

구원받는 것과 관련 된 신약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보면 복음이 제시될 때 사람은 듣고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여 구원받는다. (*) 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중요한 구절 100개, 믿어야 구원받는다.

요3:16, 롬10:13

롬10의 전체 핵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 선포자가 있어야 하고 복음이 선포되면 그 뒤에 사람이 듣고 회개하고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

수백 구절: 회개해야 한다. 주님을 불러야 한다. 그리고 믿어야 한다.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 창세기 15장 6절, 히브리서 11장, 계22:17

이것이 구원과 관련된 낙타이다. 이것을 부인하면 그는 자기 뜻이나 교회 목사나 교단이나 인간 스승이나 전통을 믿는 자이다. 눈먼 안내자 혹은 눈먼 안내자를 추종하는 어리석은 자, 도랑에 빠진다. 자기뿐만 아니라 남들도.

이런 데서 떠나야 한다. 복음에 반응하여 의지를 가지고 믿는 것은 사람의 책임이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까?

에베소서 교회에 대한 교리, 나중에 자세히 강해할 것이다.

1-2절 인사

엡1:3-4 선택과 예정 설명

(*) 3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4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5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 6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니라.

의미 3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4,6절에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여기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4절을 이용하여 이 사람들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자기들의 의지 믿음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말한다.

4절: 그냥 읽으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택자가 되도록.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 이런 것이 모기에 해당된다. 칼빈주의자들은 여기에 긴장한다.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1. 3절과 4-6절을 떼어서 읽으면 안 된다. 전체를 보아야 한다.

2. 여기의 '우리'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읽으면 안 된다. (*) 일단 여기의 '우리'는 13절, 19절에 있는 것처럼 무조건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다. 복음이 제시될 때 듣고 신뢰한 자들이다. 믿은 자들이다. 지금 믿고 있는 자들이다.

3. 전체 문맥을 보고 해석해야지 칼빈주의의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

4. 칼빈주의자들이 삭제하려는 단어가 4절에 들어 있다. (*)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이다.

4절을 보자.

우리는 4절대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여기는 우리 즉 성도들)을 선택하심을 믿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무조건적이 아니다.

칼빈주의자들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을 무시하고(간과하고) 무조건적으로 창세 전에 예정되고 선택되었다는 것만 강조한다. 그래서 고의로 '그리스도 안에서'를 뺀다.

'그리스도 안에'의 중요성

바울은 엡1:1-13절에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을 자그마치 11번이나 한다(1, 3, 4, 6, 7, 10(2번), 11, 12, 13절에서 2번)

- 1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 3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 4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 5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
- 6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 주셨고
- 7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 8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 9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 주셨으니
- 10 이것은 때가 충만히 찬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 11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 12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 13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in whom, in Christ)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를 빼면 에베소서 1장의 해석은 바르게 이루어질 수 없다.

에베소서에는 전체적으로 무려 40번 이상이나 우리에게 속한 모든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다 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를 빼면 에베소서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엇인가?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가?

답은 13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

(*) 13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14 이 영께서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사람 편에서 구원받는 순서이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은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에 의해 봉인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의 성경적 의미

왜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한가?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첫 사람 아담 안에 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다 죽는다.

그러나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은 뒤에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진다.

즉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

(*) 고후5:17,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골1:13-14,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였다는 말이다. 이렇게 믿은 것은 창세 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3절에 있듯이 복음이 제시될 때 우리가 믿을 때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 믿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In Christ(38), In Jesus Christ(4),
In Christ Jesus(40), In Jesus(3), 총 85회, 바울 신학의 최고봉

어떤 사람들의 반론: 그런데 왜 창세 전에 택하셨다고 말하는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느냐?

(*) 갈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어떻게 바울이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다.

계13:8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분이시다.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과정은 항상 동일하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세상의 창건 이전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아신다. 그들의 행적을 아신다. 그러나 그들의 자유 의지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베드로가 구원받는 것을 미리 다 아신다.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미리 다 아신다.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다.

즉 구원의 복음이 개개인에게 전달될 때 어떤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믿어 구원에 이를 것을 아시고 다른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거부할 것을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미리 아심을 통해 에베소 성도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받을 자들로 선택하고 예정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는 무조건적이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는 믿음이라는 조건이 있다.

무구든지 구원받는 것이 낙타이다. 미리 아심을 빼고 나며지만 말하면 모기가 된다.

이렇게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과 선택을 하시지만 역사 속에서는 각 사람이 믿는 때가 있다.

(*) 뵤전1:1-2, 1,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2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순서, 2절의 선택받은 자들은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른 자들이다. 즉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에 이른 자들이다.

이렇게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선택되고 예정이 된다. 즉 하나님은 그들의 앞날을 보시고 구별하셔서 선택하고 예정하신다.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 로마서 8장

28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8절의 우리는 성도들이다. 우리는 다 믿어서 성도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가? 29-30

성도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이 된다.

그들을 부르신다. 칭의, 성화, 영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관한 한 하나님 편에서는 미리 아심이 가장 먼저 나온다.

아무나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창세 전에 선택하고 예정하신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면 그들은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선택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구원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다.

어떻게 확실히 아는가?

1. (*) 4절의 우리는 19절의 믿는 우리와 동일하다.

2. 엡2:8, 9를 보라.

8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이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도록 예정을 받는다(4).

그러므로 엡1:4를 읽고 모기에 긴장하고는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 에베소서 1장이,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보고 문맥에 따라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어떤 진리의 일부를 떼어서 그것을 그 진리의 모든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것은 비진리가 된다. 즉 무슨 모기 문제가 생기면 늘 낙타를 먼저 보고 문제 모기를 보아야 한다.

자, 그러면 행13:48을 보도록 하자.

(*) 행13:48,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파이퍼 등: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만 믿는다. 구원을 받는다. 예정되지 않은 자들은 믿지 않으며 구원을 받지 않는다.

드디어 모기가 나왔다. 낙타를 보아야 한다. 벤전1:1-2, 롬8:28-30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 의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드디어 때가 되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 믿고 구원받았다.

즉 사람들의 눈에, 성경 기록자 누가의 눈에 드디어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그들은 ordain, 구원받는 자들의 반열에 이미 들어가 있다. 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보시고 구원의 대열에 집어넣으셨으므로

결론

성경 해석의 황금률: 먼저 낙타를 보고 모기를 봐라. 산을 보고 나무를 보라.

하나님은 미리 아심에 근거하여 사람을 선택하고 예정하신다. 예지 예정 선택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하지 않는다. 인간의 자유 의지 믿음 책임이 있다.

딤후2:15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